

의 과학은 産業社會의 認識의 양식이었다.

러시아혁명과 과학

조선대 홍성욱

I. 문제의 제기

1931년 소련의 철학자 Mitin은 당이 정치의 영역에서 좌·우편향과 투쟁하고 있듯이, 철학의 영역에서도 좌·우편향과 투쟁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당이 규정한 좌편향은 NEP 시기에 노—농 간의 동맹(smychka)을 위협하며 급속한 산업화를 주장한 Trotsky, Preobrazensky 등의 그룹이었고, 우편향은 부농(kulak)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농촌과 농민의 사회주의화를 반대한 Bukharin 등의 그룹이었다.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 좌편향은 멘세비키적 관념론에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데보린주의였으며, 우편향은 ‘양적 축적에 의한 질적 비약’이라는 발전 법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완만한 건설론자들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기계론자들이었다. 당시 당의 공식입장을 대변했던 Mitin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와 철학에서 나타났던 20년대 논쟁은 이후 많은 역사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그리고 몇몇 역사학자들 —과학사학자를 포함해서—은 이 상이한 두 영역에서의 논쟁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소련의 연구가들은 철학에서의 오류가 반드시 정치사상에서의 오류를 낳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에 반해, 서방세계의 학자들은 당에서 규정한 좌·우편향이라는 것은 모두 Stalin이 정적을 숙청하기 위한 음모였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고 있다. 실제로 이 둘의 연관이 있었는가, 또 있었다면 어떤 연관이 있었는가? 이 글에서

는 정치와 철학(실제로는 철학과 과학)에서 나타났던 20년대 논쟁을 살펴보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한가지 잠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산업화의 과제와 농민문제

혁명 이후 볼셰비키 정부가 해결해야 했던 수많은 숙제들의 근원은 ‘생산력 수준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시킬 만큼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변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귀결되었다. 대부분의 볼셰비키는 생산력의 수준을 빠른 시일내에 향상시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가능하게 할 단계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인구의 85%정도가 농민인 당시 소비에트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 산업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통일된 입장의 부재는 NEP 시기에 와서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낳게 되었다. NEP의 기본 정책은 ‘노—농간의 동맹’을 깨지 않는 정도의 산업발전과 농촌의 협동농장화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Trotsky, Preobrazensky와 같은 좌파 반대세력은 농업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공업을 급속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업에 할당된 자본을 2배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투자는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의 소비를 억제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국가가 경제를 독점, 소비재 가격을 올림으로써 농민 소비를 억제하고, 강제 저축을 통해 농민의 잉여를 흡수해서 외국의 자본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농촌이 급속하게 사회주의화, 즉 집단농장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부농과 중농은 모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었으며, 따라서 좌파세력에게 부농과 중농은 노동자와 동맹을 맺을 농민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야 하는 집단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해 Bukharim, Rykov 와 같은 우파는 NEP의 가정인 '노—농간의 동맹'을 깨지 않는 완만한 경제발전을 생각하고 있었다. 농민은 세금을 제외한 자신의 잉여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하고, 그들이 필요한 소비재를 기존의 소규모 공업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스스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활성화된 농촌은 다시 도시의 산업과 노동자에 곡물, 원자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도시의 대규모 공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농촌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우파의 주장은 결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의 구매력과 공급능력에 기초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이론이 설득력있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전제가 필요했다. 첫번째는 농민의 구매력이나 공급능력이 모두 시일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업화의 속도가 완만해야 한다는 점이었고, 두번째는 시장으로 내놓은 잉여농산물의 대부분을 생산해내는 부농과 중농에 대해서 당이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Ⅲ. 과학과 철학 : 자연과학과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철학—과학 영역에서의 논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러시아 혁명운동의 전통에 입각해서 볼 때 오히려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혁명 이전부터 마하주의 과학철학에 유물론은 접목시킨 Bogdanov 와 변증법적 유물론이 정통 마르크스주의 철학이라고 주장했던 Lenin 이 과학과 철학의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Lenin 은 이후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고전이 되었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물질의 실재성·반영이론·의식의 변증법적 발전 등을 강력히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발전이 바로 이러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었다.

레닌이 자연과학의 최신 결과가 변증법적 유물론을 지지해준다고 믿었던 것에 비해 혁명 이후의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자연과학의 최

신 결과가 헤겔식의 '변증법'에 내포된 신비한 측면을 제거해 버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흔히 기계적 유물론자, 기계론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변증법적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다름아닌 현대 과학의 가장 최근의 결과의 집합체라고 규정했다. 즉, 과학과 별개로 존재하는 변증법적 철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이론이었다.

기계론자들이 레닌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가했던 비판은 주로 '변증법'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들은 헤겔의 신비적이고 목적론적인 변증법이 마르크스나 엥겔스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포함되어 버렸으나, 적어도 20 세기에 살고 있는 자신들은 변증법에 대해 더 이상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이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이 가진 신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임무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사물의 '운동'은 기계론자들의 비판이 집중되었던 문제였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의 운동을 '대립물의 상호침투와 통일'로 설명했는데, 기계론자들은 이러한 식으로 물질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 헤겔의 사물의 '자기운동' 운운과 다를 바 없는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사고라고 일축했다. 물질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의 운동은 물질 외부의 힘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기계론자들은 또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양—질 변화' 법칙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겨누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양적 변화는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하나의 급격한 비약에 의해 질적 변화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나타난 질적 차이는 단순히 양적 차이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계론자들은 현대 과학의 발전에 따르면 생명과 같은 고차적 현상은 물리·화학의 반응과 같은 저차적 현상으로 환원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 차이란 결국 양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계론자들에 의하면 '양—질 변화'의 법칙은 변증법적 유물론이 물려받은 헤겔식 신비주의의 또 하나의 형태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계론자들에 대한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의 비판은 과학과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기계론자들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자연과학의 최신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고 주장했음에 반해, Deborin을 선두로한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이 과학과 나란히 독립된 학문, 즉 방법론과 과학적 인식의 이론으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 과학 연구 활동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에 의하면 과학이 해답을 내리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 변증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은 해답의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과학자들의 연구까지도 지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과학은 개별적 사실을 총체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변증법적 방법을 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데보린주의자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과학의 상위개념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변증법’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질’의 범주의 독립성을 강조했으며, ‘양—질 변화’라는 변증법의 법칙을 사물의 운동발전이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기계론자에 반대하여 자연물의 각각의 단계는 고유한 특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무기물—생물—의식 사이에는 연결과 동시에 단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물질이 모여서 생명체가 되고, 역사적으로는 무기물이 발전해서 생명체가 탄생하지만, 그렇다고 생명현상에 독특한 특성이 전부 물리 화학적 반응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물질의 발전은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변증법적으로 비약함으로써 생명이라는 새로운 질이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기계론자들과 변증법적 유물론자들간의 투쟁은 1920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기계론자들은 데보린주의자를 헤겔의 관념론에 심취한자라고 비난했고, 데보린 주의자들은 기계론자를 마르크스—엥겔스—레닌의 유물 변증법을 통속적 유물론의 수준으로 평가절하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그해 이 두 그룹의 논쟁은 데보린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곧이어 당은 데보린주의

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헤겔식의 관념론으로 왜곡시켰으며, 당의 정치투쟁을 사상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방관했던 멘셰비키적 관념론이라고 규정했다.

Ⅳ. 철학·과학·정치·20년대의 소련 상황

정치의 영역과 철학—과학의 영역에서의 논쟁 사이의 직접적인 일대일 대응의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여러가지 증거는 이 두 영역에서의 논쟁이 거의 관련없이 벌어졌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1931년 Mitin 자신도, Trotsky 같은 경우는 정치노선에서 좌경화에 빠져 있었지만 철학에서는 통속적 기계론자였듯이, 좌경화의 문제를 기계론과는 무관하게 관념론만으로 간주하는 것을 비판했다.

일대일 대응이 찾아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영역에서의 논쟁과 철학—과학 영역에서의 논쟁에는 일정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좌편향으로 규정된 좌파 반대세력과 데보린주의자들은 모두 ‘질적 비약’ 단절, 급격한 발전과 같은 혁명적 변화를 강조했음에 반해, 우편향 세력은 양적 축적, 균형, 완만한 발전과 같은 점진적 변화를 선호했다.

이런 유사성의 근원은 무엇일까?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적어도 한가지 문제가 이 논쟁을 관통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혁명 이후 소비에트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구사회의 특권 계층의 참여를 어느정도 허용하는가의 문제였다. 경제적 논쟁에 있어서는 넓은 땅을 보유한 부농이 문제였으며, 과학—철학 논쟁의 배경에는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거나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수용하지 않았던 과학자들의 존재가 문제가 되었다. Lenin의 말대로, ‘과학자들은 잠정적인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될 것인가 또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으로 훈련된 과학자들이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앞장서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기계론자들은 전자의 방향을, 데보린주의자들은 후자의 방향을 각각 선호했던 것이다.